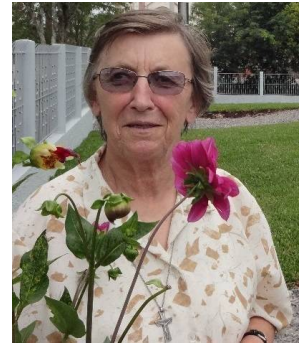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2024년 10월 7일 06시 55분(현지시간),
브라질 카시아스 도 술의 베타니아 공동체에서
M. GEMA SIGNOR 수녀님이 85세로
(63년간수도생활) 지상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시다! 시편 작가의 이 말씀은 오늘 선하고 충실한 빠스또렐라로서 상을 받도록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제마 수녀님의 완전하게 자신을 봉헌한 63년 간의 헌신적인 수도생활을 요약합니다.

이라세마는 1939년 3월 29일 브라질 벤토 곤살베스에서 태어나 같은 해 4월 4일 출생지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6년 10월 2일 카시아스 도 술 - 성 레오폴도 공동체 로 수녀회에 입회했고, 1960년 2월 1일 입수련했습니다. 1961년 2월 2일 마리아 제마 수녀라는 이름으로 첫 서원을 했습니다. 첫 서원 후 파군데스 바렐라(브라질) 공동체로 파견되었고, 1962년 카시아스 도 술 - 성 레오폴도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 1966년 2월 2일 종신 서원을 했습니다.

제마 수녀는 브라질의 다양한 사목적 현실에서 강렬하고 유익한 사목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1967년 포르토 알레그레-파르테논; 1968년 성 바오로-자르딤; 1970년 게툴리오 바르가스; 1973년 카시아스 도 술-성 레오폴도; 1974년 카주자 페레이라; 1977년 성 바오로-자르딤; 1978년 카주자 페레이라; 1984년 카시아스 도 술-성 레오폴도; 1989년 카시아스 도 술-성 시로 ; 1990년 카주자 페레이라; 1991년 레덴시옹 도 아라구아이아; 1993년 카시아스 도 술-성 레오폴도; 2012년 아나스타시오; 2013년 카시아스 도 술-성 카타리나; 2015년 카시아스 도 술-코합; 2017년 카시아스 도 술-테세이라 레구아 그리고 2018년에는 갑자기 지상 순례를 마친 오늘까지 평온하고 즐겁게 살았던 카시아스 도 술의 공동체 '베타니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녀님께 애정을 쏟은 수녀님들과 헌신적으로 수녀님을 돌봐 준 직원들, 수녀님의 삶과 사명에 항상 함께해준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녀님들은 제마 수녀를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목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빠스또렐라로 묘사합니다. 수녀님은 자신을 위해 시간이나 날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제마 수녀님은 하느님과 교회, 하느님의 백성을 사랑한 선교사였습니다. 수녀님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자신의 힘을 재지 않았고, 특별히 주로 가장 어렵고 궁핍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수녀회 안에서 수녀님은 항상 수녀들에게 매우 관대하고 도움을 주며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수녀님은 매우 유머스럽고 즐거운 성격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수녀님을 '기쁨의 수녀'라고 불렀고, 수녀님은 슬퍼하는 사람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녀님은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텃밭과 정원, 자연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수녀님은 많은 사랑과 친절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돌보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사목자들에게 요구한 '양의 냄새를 풍기는 목자'라는 표현을 수녀님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녀님은 의료와 사목 활동에서 많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지역 사회, 가난한 이들의 삶에 참여하며 살았고, 열정을 가지고 병자를 돌보고 농가의 추수를 도우며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수녀님의 등장은 실제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최근에는 병으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어 이미 베타니 공동체에 있을 때에도 항상 선교 공동체에 가고 싶다고 청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제마 수녀님, 창립 86주년을 지내면서 아버지의 자비에 당신을 맡기고, 수녀님의 사목적 열정의 놀라운 선물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섬기는 목자로서의 기쁨에 대해 선한 목자에게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선물과 거룩한 성소자들을 위한 수녀님의 중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민타 사르미엔토 수녀

총 원 장

**2024년 10월 7일 , 멕시코 시티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